



이기는 성장! 성공하는 변화!
LG전자와 협력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LG전자, 협력사들과 지속가능 상생 위한 워크숍

LG전자는 22일 경기도 평택 LG전자 러닝센터에서 '2022년 LG전자 협력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 행사는 협력사들과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전자 경영진뿐 아니라 협력사 모인 협력사 81곳 대표가 함께했다. 조주완 사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LG전자 경영진과 주요 협력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이스타항공 김문권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스타항공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취성정의 김문권 대표(사진)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한항공, 한국경제신문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을 지낸 대외협력 전문가로 통한다. 최근엔 에어프레미아 대외담당 상무, 소형항공사 NF-Air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8월 (취성정 대표로 합류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넷마블, 대한민국소통어워즈 2년 연속 2관왕

넷마블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발표된 '2022 제 15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과 '대한민국디지털콘텐츠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넷마블은 2022년 '고객만족도 종합지수'에서 S등급 89.47점을 얻어 100대 기업 평균인 83.09점을 상회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넷마블



하이트진로, 소외이웃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하이트진로가 지역사회 소외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후원한다. 22일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왼쪽)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김은선 사무국장(오른쪽)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식을 진행했다. /하이트진로



이대서울병원, 미래행복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이대서울병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제6회 미래행복대상'에서 국민건강 기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현태 이대서울병원 홍보실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제6회 미래행복대상'에서 국민건강 기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

현대차그룹-정몽구재단, 11년 간 스타트업 294개 육성

스타트업 그라운드 파이널 데이 10기펠로 6개월간 63억 매출 달성

현대자동차그룹이 혁신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2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파이널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재단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약 11년 간 사회적경제기업 및 임팩트 스타트업 육성 사업인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을 지속 전개해 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예비 창업~법인 3년차 스타트업의 시장 검증을 지원하는 'H-온드림 A(Adaptive Incubating)' 트랙 ▲연 매출 1억원 이상 스타트업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는 'H-온드림 B(Business Accelerating)' 트랙 ▲현대차그룹과 협력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H-



이병훈 현대차그룹 상무(두 번째 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정현곤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김문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파이널 데이' 행사에서 선발된 펠로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온드림 C(Collective Environment Action)' 트랙으로 모집 단위를 세분화해 트랙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재단은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사업으로 올해 9월까지 스타트업 294개 육성, 일자리 5195개 조성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 간의 모집 및 심사 기간을 거쳐 A 트랙 20팀, B 트랙 5팀, C 트랙 3팀, 도합 28개팀의 10기 펠로2)를 신규 선발했으며, A 트랙 팀별 2000만원, B 트랙 팀별 4000만원, C 트랙 팀별 5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0기 펠로들은 선발 후 약 6개월

간 ▲63억 2천만원의 매출 달성 ▲49억 6천만원 규모의 투자 유치 ▲7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55건의 MOU 및 28건의 계약 체결 ▲33건의 특허 출원 ▲각종 경진대회 및 공모전에서 16건의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파이널 데이' 행사에서는 28개 펠로 중 특히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펠로를 '우수 펠로'로 선정해 수상했으며, A 트랙 우수 5팀에 각 1000만원, B 트랙 우수 1팀에 6000만원, C 트랙 우수 1팀에 1억50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혁신 기술을 지닌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로 생태계 확장과 협업을 하고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의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설립자이신 정몽구 명예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이 본 사업을 통해 청년 창업가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장애인들에 임직원용 간식 제조 맡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내년 상반기 중 생산 시작

삼성전자가 장애인들에 임직원용 간식을 맡긴다.

삼성전자는 23일 화성캠퍼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설립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국내 사업장 임직원용으로 공급할 제과제조를 맡게 된다.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



삼성전자 최완우 부사장(왼쪽)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장은 "전 세계 글로벌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가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감사드리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공단의 모든 자원

과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DS부문 인사팀장 겸 사회공헌담당 최완우 부사장은 "공단의 지원에 감사드리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하는 자립의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삼성은 '함께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이라는 CSR 비전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협력사 지원 등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탈 28개 메달 '최고 성적' 삼성, 적십자사에 헌혈버스 4대 기부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 운영하는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탈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다.

한화큐셀은 장애인스포츠탈이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 등 총 28개의 메달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큐셀장애인스포츠탈은 이번 대회에 시카츄구, 조정, 역도, 사격, 지적츄구, 골볼, 수영 등 총 7개 종목에 총 3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탈은 역도에서만 금메달 1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특히 역도 황상훈 선수는 출전한 세 종목에서 모두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



역도 종목에서 금·은·동메달 각 1개씩을 수상한 한화큐셀 김민지 선수(왼쪽)와 한화큐셀 장애인스포츠탈 임원배 단장이 지난 제 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수상선수 및 지도자 대상 포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10년간 매년 4대씩 총 40대 전달 수원사업장서 헌혈봉사 행사도

삼성이 대한적십자사에 헌혈버스 4대를 전달했다. 삼성이 향후 10년간 기증기로 한 헌혈버스 40대 중 첫 번째 물량이다.

삼성과 대한적십자사는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삼성 임원 후원 헌혈버스 전달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헌혈 봉사'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증은 삼성 관계사 임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100억 원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자들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해 헌혈버스를 제작하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삼성의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삼성은 23일 경기 수원시 소재 삼성디지털시티에서 헌혈버스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헌혈버스를 4대씩, 총 40대의 헌혈버스를 신규로 교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단체 헌혈을 활성화하고 헌혈자 편의성을 개선하여 저출생·고령화와 코로나19 등에 따른 혈액 부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